



농협 전북·경기본부,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한마음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와 경기본부(본부장 엄범식)는 3일 부안농협에서 열린 부안농협·안양원에농협 상생협의회에 인직원 1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전주 유치와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에 경기농협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생협의회에는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과 김원철 조합장(부안농협), 경기농협 엄범식 총괄본부장과 박재봉 조합장(안양원에농협)이 함께 했다.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우리 농협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36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경기농협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농협 엄범식 본부장은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넘어 전 국민적인 이벤트로써 우리 경기농협도 큰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할 것이며,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화합·소통의 장 통한 결속력 강화

전북자치도, 2025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2025년 한국생활개선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농작업 안전문화 확산과 회원 간 소통·결속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생활개선회전북자치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도농업기술원이 후원했으며, 도내 14개 시군 생활개선회원과 관계자 6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최식에서는 시군 단체기 입장, 생활개선회 활동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농작업 안전실천 다짐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생활개선회원과 내빈이 함께 농촌현장의 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의미를 더했다. 어울림마당에서는 시군별로 구성된 14개 팀이 노래, 연극, 난타 등을 활용한 농작업 안전실천 다짐 경연대

회를 진행,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축하공연과 시상식이 이어지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활개선회 활성화와 도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이행단 한국생활개선회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은 "이번 대회는 생활개선회원들이 농작업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라며,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활개선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생활개선회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리더"라며, "여름철 안전한 농작업 실천을 통해 살맛나는 농촌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 입암면장 취임 첫걸음, 40개 경로당 찾아

정읍시 입암면 신임 면장이 취임 직후 마을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위해 경로당 40곳을 직접 돌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재병 면장은 7월 1일자로 부임한 이후, 40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과 첫 인사를 나눴다. 이번 순회는 마을 안부를 살피고 경로당 운영상 어려움을 경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어르신들은 폭염 속 건강관리,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운영 애로사항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정 면장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재병 면장은 "마을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불편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농협, 농업인 자녀에 무선 이어폰 전달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3일, 관내 취약계층 농업인 자녀에게 농촌지역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무선 이어폰(84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박기열 조합장은 "관내 농업인 자녀가 디지털 교육 시대에 적합한 학습 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농협재단 후원으로 준비했다"며, 농업인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자녀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봉센터, 남원 청소년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남원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4일 남원중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369여명을 대상으로 '2025 남원시 청소년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기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창의적 역량과 인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2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365자원봉사 홍보부스를 비롯해 심폐소생술 체험, 환경보드게임, 드론VR 조종, 세대공감 이야기 등 진로·환경·보건·인성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어 참가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남원대학교고등학교는 '식물성공공급 영상 만들기'와 '은하수카페' 부스를 운영해 자원봉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접목을 보여주었으며,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는 VR 드론 조종 체험과 진로탐색 교실을 통해 선배와의 소통을 통한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남원문화원은 민화 파우치 만들기를 통해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상담 안내를 통해 청소년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친근한 접근과 다양한 진로·문화 체험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와 가까워지는 좋은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노암동, 취약계층에 삼계탕 전달

남원시 노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차미화·염창길)는 지난 3일, '사계절 이웃사랑 행복 밥상'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여름 보양식 삼계탕을 전달했다. 노암동 행복 밥상은 계절별 맞춤형 보양식을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삼계탕, 가을에는 추어탕, 겨울에는 곰탕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이웃에게 전달한다. 이번 삼계탕 전달은 '1일 1가구 소용행정'과 연계해 진행되었으며, 협의체 위원들과 동 직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찾아가 삼계탕을 전달하고, 건강과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재경 산동향우회, 산동면에 의류·마스크 등 기부

남원시 산동면 관계자는 최근 재경산동향우회(회장 이명철)에서 관내 주민들을 위해 티셔츠, 인견치마 등 의류 200여 벌과 마스크 등 약 700여 만원 상당의 현물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재경산동향우회는 매년 의류, 마스크 등 우수한 품질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기탁하고 있으며, 기탁 물품은 1일 1가구 소용행정 추진과 병행해 지역아동센터와 마을 경로당, 관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면서 안부확인하고 여름철 건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명철 향우회장은 "매년 뜻깊은 기부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더 많은 주변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공무직노동조합 창립 10주년 기념행사·환경 정화활동

전국공무직노동조합 고창군지부(지부장 최선례)가 지난 4일 오전 10시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이권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노동계, 조합원 등이 참석한 창립 10주년 행사를 축하하고 향후 발전을 기원했다. 기념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고창군 장학재단 장학금기탁, 모범조합원 표창 수여와 조합원과의 기념 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 후 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고창 하천을 시작으로 전불길까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매년 환경정화활동은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최선례 전국공무직노동조합 고창군지부장은 "창립 10주년이 되기에 함께 해준 조합원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가족 같은 노동조합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기본 자세로 직원들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공무직노동조합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최일선에서 군민을 위해 애쓰는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성숙한 노사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무주군에 선봉기 40대 기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연상)이 무주군 저소득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선봉기 40대(2백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지난 4일 무주군청 공직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연상 이사장과 박종철 노조위원장 등 공단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기부 물품은 지난 5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건강한 여름나기'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상 이사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 간에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군민을 행복하게 하려는 무주군을 응원하는 공단의 뜻을 담았다"며 "무더위에 취약한 어려운 이웃들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의료원,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의료서비스 지원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지난 3일, 순창군 구립면 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의료, 상담, 문화, 여가 활동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남원의료원 전문의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진료와 영양 수액 등을 제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종합돌봄 상담을 운영하였으며, 순창군보건의료원 등의 기관이 함께 참여하였다. 오진규 원장은 "지속되는 무더위로 지치고,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돌봄을 수행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자봉센터,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 전개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인숙)가 지난 3일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80세대를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6월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 중인 2025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6.25참전유공자 등 등 보훈 가족 27세대에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하여 여름 이불, 영양삼계탕, 미숫가루, 현미 누룬지, 보리 과자, 모기약으로 꾸러미를 만들어, 읍·면사무소와 임실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임실지회에서 추천받아 취약계층 80세대에 지원했다. 임실군자원봉사센터는 온기 나눔 캠페인, 탄소중립 캠페인,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 나눔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임실=진용영 기자



김인숙 센터장은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통해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 기쁘다"며 "함께 참여해 주신 봉사자께 고맙습니다"고 밝혔다. /임실=진용영 기자